기회가 없어져야 희망이 있다

(사사기 8:1~21)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2.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4.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삼백 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5. 그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6. 숙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7.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 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8.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9.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회가 없어져야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회가 없어져야 희망이 있다'
기회와 연관되어 회자되는 속담과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기회는 꿈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내용을 보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 모든 말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희망을 전제하지 않고 기회를 말하는 법은 없습

니다. ‘기회’라는 말의 사전적 뜻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두 번째는 겨를이나 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갖는 의미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나 겨를이나 짬이 기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중에 ‘기회를 봐서 연락을 드릴게요.’라는 말을 한다면 ‘겨를이나 짬이 나면 연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서 자취하면서 공부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기회를 봐서 김치 좀 가지고 가렴.’이라고 한다면 ‘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한 단어를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출 기회, 이탈 기회, 벗어날 기회’라는 것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높은 호감도를 가지며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기존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내가 있는 기존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탈출할 겨를과 짬이 바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해서 ‘성공을 잡을 기회’라고 말하더라도 ‘탈출’이라는 의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잡을 기회는 실패를 벗어나는 것이고 실패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실패와 동일시되는 기존의 지속되는 상태로부터 탈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고 평범한 삶에서 빠져나와 대박으로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겨를이나 짬이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실패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겨를과 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라는 말이 항상 탈출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기회의 균등인데, 아예 기회가 없는 땅이라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전혀 없는 땅이 있다면 최고의 땅이 되는데, 기회는 언제나 기존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는 땅이 존재한다면 바로 낙원일 것인데 기존의 상태에서 더 바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초고속으로 사장 자리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렸지만 사장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기회가 필요 없어집니다. 승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기회도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없는 땅과 상황이면 최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덴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탈출 기회 제로의 땅인 것입니다. 낙원에서는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희망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하기 때문이고, 에덴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못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등장해서 아담에게 현재 에덴을 바람직하지 않게 느끼도록 설득합니다. 아담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받아서 사는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의 마음에 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드디어 기회를 욕망하게 됩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만 받아서 사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기회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판단과 평가와 분별없이 살 수가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붙어 지내야만 합니다. 아담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받아서 좋고 나쁨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그 상태에 대해 '너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거짓된 희망을 넣어준 것이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에덴동산을 숨 막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만을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고, 마치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완전한 평강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답답한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도록 상황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회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답답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유전 죄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지금 보고 만나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아시고 느끼고 계시므로, 우리 마음은 그것에 대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죄의 경향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조차도 먼저 판단을 한 뒤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동산에서는 더 이상 좋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최고로 바람직한 상황을 안 좋은 상황으로 속이면서 '기회'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므로 사탄의 창조물인데 여기에서 '기회주의자'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어느 일정한 원칙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이득을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참의미를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주의자의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가 세 번의 만남을 갖는데 이 세 번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삼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알리게 되고, 남쪽으로 도망가는 적장 둘을 남쪽의 에브라임 지파가 죽이고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데,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기회주의자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는 ‘미디안에게 대항하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기드온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미디안을 대항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떻게 삼백 명으로 미디안을 맞설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것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원래부터 미디안의 침략을 자기들이 알기만 했으면 다 무찌를 것이었는데 왜 우리는 모르게 했냐는 듯이 말을 뒤집어버리는 것인데 이게 기회주의자입니다.

또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은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숙곳과 브누엘이 갓 지파의 땅이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이 지쳐서 이들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하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며 ‘못 준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면 패장의 손을 잘라서 승리의 표식으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도망을 치지만 10절에 보면 “만 오천 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기드온과 삼백 명은 승리했지만 지치고 초라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관성 있게 지배하고 있었다면, 기드온과 삼백 명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무찌르고 대항했어야 합니다. 그 동안은 힘이 없었지만 서편에서 ‘기드온과 삼백 명이 미디안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맞섰다면 만 오천 명의 적들을 숙곳에서 전멸시켰을 것인데, 적들의 위용에 겁을 먹고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이 기회주의이고, 세상에서는 모르는 기회주의의 본래 의미가 드러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갓 지파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회주의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 내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존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말이 작용하는 세밀한 시간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에덴에서 사탄에 의해 생겨났고, 이 기회는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 앞에서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은 기회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기회’라는 말을 떠올리려면 기회를 내 삶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회는 사탄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역으로 이용해야 합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회이고 타락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기회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경향성으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십자가 나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미 그 기회를 잡으려는 경향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듣고 내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의 의견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이 경향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기회를 잡으라.'고 하지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기회를 잡는 도사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잡으라고 할 필요가 없고 잡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평가와 내 판단에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여 이 기준과 판단이 죽으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필요 없는 최선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견과 뜻과 생각과 명령을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경향성이 죽고 나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해서 지금의 상황이 베스트로 느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베스트로 느껴지는 그 감사 속에서만, 내가 행해야 될 행동의 원칙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견이 전달되고 깨닫게 되고 소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아십니까?
기회는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기회를 잡으려는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기회 없는 땅을 만들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회가 없어도 될 만큼 완벽하게 행복한 땅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을 기회의 땅으로부터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회 없는 땅으로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